(이스탄불=연합뉴스) 김승욱 특파원 = 유럽 주요국 증시는 2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경제회복기금 논의를 주시하며 관망세를 보였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46% 하락한 6,261.52로 거래를 마쳤다.

반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0.99% 오른 13,046.92로,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0.47% 오른 5,093.18을 기록했다.

범유럽지수인 유로 Stoxx 50 지수도 0.68% 상승한 3,388.34로 마감했다.

시장은 EU 지도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회복기금 논의에 촉각을 기울였다.

이날 EU 정상들은 지난 17일부터 나흘째 벨기에 브뤼셀에서 7천500억 유로(약 1천33조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과 1조740억 유로(약 1천479조) 규모의 2021∼2027년 EU 장기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EU 회원국들은 경제회복기금 규모, 보조금과 대출 비율 등 지원 형식과 조건을 두고 이견을 보였으며 이날 장 종료 전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kind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7/21 01:43 송고